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쿡방'의 사회적 의미

인간은 생명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욕구를 실현해야 한다. 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다. 먹어야 살 수 있다. 가난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선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고 굶주리는 기아 상태나 그것이 지나쳐 죽음에 이르는 아사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난민들이 전쟁과 굶주림에 지쳐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해안에 도착하고 있다. 그것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굶주림의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봄이 오면 쌀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던 보릿고개가 있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이 되고 6·25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렸다.

195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나는 가난했던 시절의 암울했던 분위기를 어렵잖게 기억하고 있다. 그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른바 '조국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마도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에게는 밥을 못 먹어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상승하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배불리 먹는 일이었다. 특히 육류 소비가 늘어났다. 그러나 과다한 육류 소비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채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배불리 먹는 것도 좋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유행했다.

오늘날 도시생활에서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이면 직장 근처의 맛집을 찾아 순례한다.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다 보면 외식을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이 맛집을 찾아 외식을 한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조미료와 양념이 지나치게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저녁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욕구도 생긴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외식 대신 '집밥'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과거에 어머니들의 직업은

가정주부였고 집밥은 어머니가 집에서 차려주는 밥상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서 옛날처럼 밥상을 차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주문 음식이나 외식도 자주 먹다 보면 질리게 된다. 자연스레 집밥이 그리운 시대가 왔다. 집밥을 흥내 내는 식당들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식당밥이지 진짜 집밥은 아니다. 집에서 만들어 집에서 먹어야 집밥이다.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떡방'에 이어 '쿡방'이 유행하고 있다. 남이 만들어 준 음식을 사먹기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법을 알려주는 쿡방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쿡방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방장은 청년 남자이고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은 젊은 남자들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서 낮 시간에 일에 지친 여성들이 식사 준비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남자도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고리타분한 옛날 일이 되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여자는 한 명도 없이 남자들만 나오는 텔레비전의 쿡방 화면은 그런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직장에서 밀려난 청년 남성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밥을 얻어먹기 보다는 스스로 요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룸에 혼자 사는 젊은 남성들도 자기 밥은 자기가 해서 먹어야 하고 '여친'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줄 수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다.

어디 텔레비전 화면뿐인가? 거리의 음식점 앞에는 음식 사진이 장렬하고 서점에는 요리책이 즐비하며 모든 잡지에는 요리란이 마련되어 있다.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런데 온통 먹는 이야기만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는 문제로 가득 찬 사회를 지속시킨다. 맛있게 먹고 살면 좋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온갖 문제와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사회학자·작가)

의료칼럼

흉터를 남기지 않는 수술



박준희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터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심란한 상태다.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목 부위의 수술은 어쩔 수 없이 흉터를 남기게 된다. 잘 알려진 로보트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하더라도 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수술자국이 남게 마련이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드랑이를 이용한 갑상선 수술도 거드랑이 부위에 5~6cm 정도의 수술자국이 남기 때문에 목 부위에 흉터가 없다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특히 목의 측면에 생기는 새얼낭종이나 침샘종양, 그리고 지방종 등은 그 혹 주변으로 절개해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 절개법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목의 측면에 수술자국이 남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두 환자처럼 한 번쯤 수술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 있다.

흉터로 인한 고민이 해결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 귀 뒤쪽과 모발선 주위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목에 있는 각종 암이나 혹을 수술로써 제거하는 '후이개 절개법' 내시경 수술이 그 방법이다. 후이개 절개법은 목의 여러 가지 혹이나 갑상선암, 침샘 종양 등을 귀 뒤의 모발선을 이용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액와부(겨드랑이)를 통한 갑상선 절제술이나 림프절 절제술과 동일하게 치료 효과도 우수하며, 무엇보다도 귀 뒤쪽과 모발선의 주름을 이용하는 탓에 수술 후에 절개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갑상선 종양 뿐만 아니라 침샘 종양, 새얼낭종을 비롯한 다양한 목의 종괴(혹) 그리고 전이된 경부암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치료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극히 일부 병원만 시행하고 있는 수술방법이라 지역 주민들이 일부러 서울로 수술받으러 갈 필

요가 없어졌다. 수술 후 여성분들의 경우 머리카락으로 인해 수술부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흉터로 인해 고민하거나 추가적인 피부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다.

거드랑이를 통한 갑상선 절제술은 간혹 유방 주위나 가슴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거나 피부 변색의 가능성이 아주 드물게 있으나, 후이개 절개법은 이러한 부작용이 극히 드물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갑상선·두경부 박준희 교수)는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액와부 절개술 수술법을 도입해 지역 병원 의사들에게 많은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는 후이개 절개술을 이용한 수술법을 이 지역에 소개하고 활발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후이개 절개법은 기존의 수술법을 응용해 고안한 방법인데다 확실한 수술 시야 확보로 인해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 영역 중 목의 모든 수술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

강진(強震)에도 편안한 강진(康津)입니다

곳에 있는 고장이라고 자부한다.

최근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각종 중앙과 지역 언론매체에서 뜻밖에도 강진을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다.

언뜻 TV자막에서 '강진'은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요즘 세대 언어로 '심쿵'한 적이 있다.

자세히 보니 강한 지진을 의미하는 '강진(強震)'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였다. 이를 내 고장 강진(康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지진피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뎠나 혼자만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비율이 높은 시골마을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진 발생 때마다 사용되는 '강진(強震)'이란 표현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 고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역민이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를 보는 많은 출향인과 외지인들도 지진피해 소식을 듣고 우리 고향 강진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강진군과 마찬가지로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진도', 최근 개봉한 영화 '곡성' 등 전혀 상관이 없는 진도군과 곡성군에서도 언뜻 지자체에 실어질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강진군의회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 23회 임시회 회기 중 성명서를 발표하는 해아라 '강진(強震)'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대신 '강한 지진' 또는 '지진'이라고 순화해 표현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2017년이 '강진 방문의 해'인 만큼 강진을 품소 체험하고 힘들고 지친 삶에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의 끝자락 강진에 전 국민이 방문해주길 고대한다.



김상운 강진군의회 의장

내가 태어나 지금도 살고 있는 강진은 편안할 강(康), 나무 진(津)을 쓴다. '편안한 나루터'라는 지명처럼 탐진강을 젓물로 풍요로운 농토에 인심도 후덕해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4만명 인구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평온한 농촌 고을이다.

문화재정정을 역임했던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남도답사 1번지로 손꼽았을 만큼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업과 영랑 김윤식 선생의 서정시, 그리고 고려정자, 병영성 등 문화유산과 역사의 자취가 지역 곳곳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 팩스 062-222-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교육부 주장 뒤엎은 감사원의 누리예산 감사

어제 감사원이 일선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예산 편성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 예산 편성을 강요해 온 교육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올 초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광주를 제외한 9곳은 재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의 경우 4월 1일 기준 부족한 누리과정비는 721억 원인데 활용 가능 재원은 321억 원에 불과해 전액 사용해도 4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나마 활용 가능하다는 321억 원의 절반가량은 이미 6월 추경에 편성돼 부족액은 훨씬 많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난 1월 "광주교육청은 자체 재원으로 최소

5개월 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 분 편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등은 정부가 예산을 부담할 것을 주장했고,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교육부가 '표적 감사'를 의뢰했다는 풍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재원이 넉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남의 경우도 감사원에서는 가능 재원 818억 원을 투입하면 부족액 804억 원을 메울 수 있다고 보였지만 이월 원유 시급한 교육시설 개선은 순도 대치 못한다는 것이 전남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거꾸로 보면 일선 교육청의 애로가 더 확인해진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투쟁이라도 세우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 역할 일 것이다.

지자체 조례에도 장애인 차별 용어 많다니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 조례에 폐질자·정신이상자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개정했지만 나주·여수시, 곡성·진도·장흥·구례군 등 6개 시·군의 조례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민간단체도 아니고 지자체가 제도적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유기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 개정 제안 요청에도 여전히 자치법규(조례)에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 6개 시·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의 주요 골자는 조례에 담긴 폐질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등과 같은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조례 124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6년 4월 기준으로 강진·광양·담양·목포·무안·보성·신안·영광·영암·장성·해남 등 11개 시군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하지만 곡성군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차별 용어를 사용한 조례 3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7개 중 1개(개정률 14%), 여수시 6개 중 3개(50%), 진도군 5개 중 3개(60%), 장흥군 11개 중 7개(63%)의 조례만 개정된 상황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당장 장애인의 지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랑하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목소리로만 듣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숲속을 거닐고 활활한 저녁노을을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흘'이 주어지면 '햇빛 날'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적었다.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 중인 시각장애인 재즈피아니스트 강상수 씨는 '부모님 얼굴'이 가장 보고 싶다고 했었다. 집 앞의 넓은 들밭과 해지는 모습도 어렵듯이 지 못한 감각이었다. 1940년대까지 '살사리꽃'이라 불렀던 코스모스에 그녀는 '하

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기도 했다.

책을 읽고 숲에 가고 싶어졌다. 오래 전 찾았던 광릉수목원이 떠올랐다. 늘 가보고 싶었던 천리포 수목원도 아른거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운영하는 숲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까 싶다.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 번호 899'로 최근 읽은 '슈베르트와 나무'는 안내견 '찬미'와 늘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김예지, 그리고 나무 인문학자 고구홍 씨의 특별한 동행 기록이다. 기자 생활을 접고 천리포 수목원으로 숨어든 고 씨는 이후 10년 넘게 나무를 보고 다

나무를 만나는 법

나무를 읽은 이들은 또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경험한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는 나무를 '보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물론 '눈'을 통해서가 아니다. 만지고, 향기를 맡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온몸'으로 느꼈다.

최근 읽은 '슈베르트와 나무'는 안내견 '찬미'와 늘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김예지, 그리고 나무 인문학자 고구홍 씨의 특별한 동행 기록이다. 기자 생활을 접고 천리포 수목원으로 숨어든 고 씨는 이후 10년 넘게 나무를 보고 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